

탑골공원의 문화적 해석

박승진

조경설계서안(주)

A Cultural Reading on Tapgol Park

Park, Seung-Jin

Seo-ahn Total Landscapes, Co.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find new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Tapgol Park and to identify programs to promote this development. In addition, the study specifies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se efforts by revealing social aspects not apparent in the physical form of the site, and reading how these aspects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apgol Park.

Because the focus of the study lies in reading cultural aspects of the site which have to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their social circumstances, the study drew materials from mass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literary magazines, which best reflect these social aspects.

Interpreting the over 100 year history of Tapgol Park in a cultural context, the study found a meaningful suggestion that such a small urban place located in a city forms a cultural identity in the course of communicating with its surrounding social situations.

The change in the identity of Tapgol Park has been sensitive to changing social circumstances rather than the physical structure of the space. The original function of Tapgol Park as a traditional city park has gradually changed towards strengthening social functions, much like the character of an urban plaza. In the process of change the park developed a unique culture. This park culture, however, came not from the original design but from its close interactions with social circumstances changing over time.

At the same time, the change in identity seen in Tapgol Park has not been fresh formed. It can be said that the inertia came into light with the potential powers under the place over the long history having been combined into the then social circumstances. In early 2002, the park re-opened, refurbished as one of the relics of the March 1st Movement.

Investigating how cultural inertias that have been developing in various forms to date will change and be maintained in this new paradigm is an important assignment for researchers.

Key Words : Tapgol Park, Identity of Park, Cultural and Social Change, Loactional Inertia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경관은 우리 주변 환경이 보여주는 풍경이나 도시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 실체로서의 환경이라기보다는 보는 사람의 의지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표상적 이미지다. 경관으로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리적 형태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문화가 담겨있다. 도시경관은 도시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건축물과 도시의 풍경이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 도시 내의 여러 활동이나 시민생활, 독특한 분위기, 이미지 등 시각적으로 감지되지 않는 영역도 여기에 포함된다(이규복, 2002).

본 연구는 바로 도시경관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도시경관을 이루는 하나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물리적 형태 이면에 감추어진 사회적 상황들을 살펴봄으로써, 탑골공원이라는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봄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공원의 새로운 전략들을 예견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두고자 한다.

도시경관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 대상에 따라 생태적 해석, 적응적(기능적) 해석, 형식미적 해석, 상징미적 해석, 경제·사회적 해석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임승빈, 1998). 본 연구에 사용된 '문화적 해석'이란 용어는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도시경관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적응적 해석, 경제·사회적 해석 등을 폭넓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탑골공원이라는 구체적 대상에 대하여 생태적·기술적·미적 측면보다는 그 이면의 문화적 배경을 탐구함으로써, 공원이라는 장소가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호흡하는지를 밝혀보려는 의미에서, 본 연구에 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초점은 탑골공원의 물리적 변천 과정을 추적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장소 이면에 놓여진 문화적 양상들을 해석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문화적 양상들은

사회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만큼, 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당대의 사회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중매체인 신문과 문예잡지를 선택하였다.

신문매체로는 1945년 이전의 탑골공원에 대한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룬 「매일신보」와 「조선중앙일보」를, 그 이후는 기사 DB가 구축된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매체가 다룬 탑골공원에 대한 기사 중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342건의 기사를 유형별·시기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의 결과를 시기별로 비교하여 그 특징적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다만 1920년대 이전의 경우 본 연구와 관련된 기사의 수가 미미하여 통계적 가치가 없으며, 그마저도 중복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월간문예잡지의 경우 공원조성 초기에, 대상지를 직접 기사로 다룬 유일한 잡지인 「개벽」지를 선택하였다. 이 기사는 1920년대 초반의 탑골공원 풍경을 잘 묘사한 것으로 당시의 공원구조와 이용행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공원개방 초기인 1920년대부터 최근의 성역화 사업후 기념공원으로 변모한 현재까지 약 80년간의 변화양상을, 장소 형성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탑골공원의 개괄적 역사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알려진 흥복사는 현재의 탑골공원 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흥복사는 1464년에 중건된 후, 원각사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으나, 1505년에서 1519년 사이에 완전히 폐허가 된 후 13층 석탑과 원각사비만 남은 채 공원 조성 직전인 19세기 말까지 방치되었다.

그 후 구한말 이 곳이 공원으로 조성된 시기에 대해서, 서울시사에서는 1893년에 영국인 브라운(J. M. Brown)이 총세무사로 내선하여 1897년에 탑골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강신용(1995)의 연구에서는 그 조성시기를 1899년 이후로 보고 있다. 조성 연대를 기록하는 것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 논고가 장소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탑골공원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기는 두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들어, 정확한 조성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현재의 팔각정은 1900년경에 설치되었고, 조성 초기는 황실의 음악연주회장으로 사용되는 등 황실의 부속 시설로 이용되다가, 1913년에 가서야 일반인도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방되었다(강신용, 1995). 1919년 3월 1일에는 바로 이 장소에서 학생·시민들에 의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만세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상징하는 장소로 변모한다. 이 후 탐골 공원은 도심에 위치한 휴식장소로, 한국인이나 거류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어 여러 차례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타 공원들¹⁾에 비해 탐골공원은 한국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공원이므로 민족정기를 상징하는 장소로 여겨짐에 따라 공원관리를 맡은 총독부에 의해 여러 차례 폐원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33년에 관리권이 총독부에서 경성부로 이관된 후 해방을 거쳐 60년대 중반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967년에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김현옥은 도심부 불량주택지대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탐골공원과 낙원동 일대의 불량건물을 철거하고 상가 아케이드를 건설하게 된다. 파고다 아케이드와 낙원상가가 이 때 건설되었으며, 공원 자체에 대한 대규모 조경공사를 시행하면서 탐골 공원을 유료화 하였다.

이후 16년간 탐골공원 한 편을 차지하고 있던 파고다 아케이드는, 사회 변화에 따라 1983년에 철거되게 되었고, 1988년에는 다시 공원 무료화가 이루어진다. 1991년에는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듬해 공원의 명칭을 현재의 탐골공원으로 개명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서울시에 의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불교계의 반대 및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본래의 '성역화'의 의미는 약화된 채, 대규모 공원정비의 수준에서 보수 공사를 마치고 2002년 봄에 재개장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탐골공원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장소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사찰에서 황실의 부속시설로, 도시공원으로 혹은 민족정

기를 상징하는 광장으로, 사적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기능이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기능으로 옮겨가는 단순한 전이가 아니라, 장소가 가진 기억과 관성이 시간을 넘나들며 계속 서로 작용하고 얽힌다.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 나타난 탐골공원의 현상들을 통해 그 문화적 해석에 좀 더 접근해 보기로 한다.

III. 공원개방 초기 탐골공원의 일상

1. 개요

공원의 최초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1897년 이전이라는 견해와, 1899년 이후라는 견해가 상충하고 있으나, 1913년에 평일에도 일반인에게 공개될 당시에는 이미 공원 중심부의 팔각정과 서남측의 군악대 건물이 세워졌으며, 1910년 이후에 벤치와 화단, 원로, 전등이 설치되어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신용, 1995). 그러나 당시에 탐골공원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용되고, 활용되었는지 즉 공원의 이용행태와 문화적 양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거의 없다. 다만 당시에 발행된 신문기사와 문학작품, 문예잡지에서 다뤄진 기사를 통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공원 개방 초기인 1920년대의 일상적 공원 풍경을 접할 수 있다.

1913년에 시작된 평일 개방 시간은, 하계 기간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1920년 4월10일자로 공원 개방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²⁾. 1922년 8월1일자로 발행된 개벽³⁾ 제 26호와 그 이듬해 3월1일자로 발행된 개벽 제 33호에서는 각각 「공원정조, 하야의 각 공원」, 「봄을 맞는 탐동공원」이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탐골공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태들을 관찰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 관찰기록을 통해 당시 탐골공원의 공간 구성과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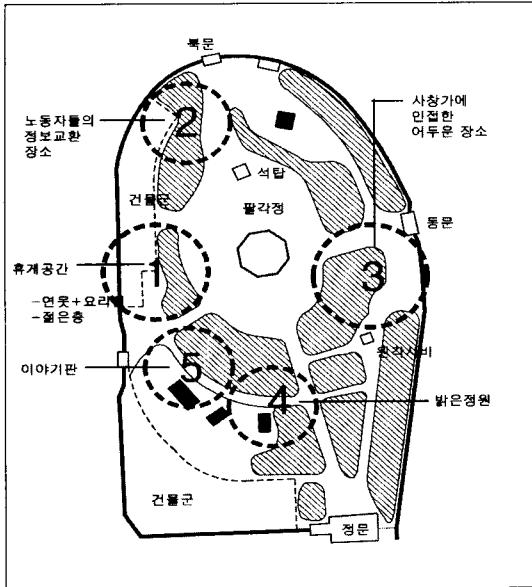


그림 1. 1920년대 탑골공원의 장소 형성



그림 2. 1930년대의 탑골공원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2. 공간구성과 그 속에 담겨진 일상

탑골공원을 관찰한 기자는 여름밤 9시부터 공원의 풍경을 기록하고 있다. 글머리에서 그는 해가 진 저녁 무렵부터 공원이 붐비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 낮의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해가 지자 녹음을 찾아 공원으로

모여든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그는 또한 공원을 '녹음의 집'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조성 당시 식재된 수목들이 20여년이 지나면서 이미 상당히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기자는 정문에서 팔각정을 향해 끈게 뚫린 길을 따라 팔각정에 이른 후 공원의 서쪽--북쪽--동쪽을 순서대로 돌면서 각 장소마다 특징 있는 풍경들을 주변 상황과 함께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 묘사를 기준으로 당시 탑골공원의 공간 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전체 공간을 대체로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이 나름대로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이 시민들의 자연스런 행태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원이 가지는 문화적 잠재력을 엿볼 수 있다.(그림 1, 2 참조)

1) 공간 1: 팔각정 서편의 연못과, 양요리집

(전략) 우리는 팔각정 압해서 서편으로 꺾기어 나무 그늘로 빠져서 연못 위에 노힌 다리를 지나 연못가 덩굴 및 뼨취에 안졌다. 서울 학생들이 이 연못을 不汚池라 부르고 그 다리를 秋月色 소설 꺾질에 있는 觀月橋라고 부르는 것도 젊은 학생의 짓다워서 滋味로운 일이다.

...(중략) 연못 북편가의 2층 日本집은 『勝利』라는 洋料理집이다. 아이스크림, 얼음 쉐 맥주를 夏節 한철에는 파느라고 ... (중략).....그 모퉁이를 돌아 팔각정으로 흰-하계 통한 길로 나서려니까 ... (중략)... 여기는 요리집압, 족만 소나무 한 株가 섰고 그 옆에 이름 모를 넓잘고 키 큰 나무 밧에 안져서 팔각정이 비듯이 보이는 곳이다. ... (중략)...여기 안져서 팔각정을 바라보면 거기 남모르는 그윽히 맛있고 風情있는 만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이 자리에 연못이 있는 흔적이 없으며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으나, 기자의 묘사에서는 다리가 놓여져 있는 상당히 넓은 연못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연못가에는 휴식을 위한 벤치가 놓여져 있어서 청춘남녀들의 데이트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연못에 놓인 다리를 최찬식의 애정소설 추월색⁵⁾ 표지에 그려진 관월교에 비유한 것은 이 장소가 당

시 젊은 학생들에게 유행에 민감한 장소였음을 반증한다. 또한 연못 북편가 2층 양요리집은, 요즘으로 치자면 연못가에 놓인 근사한 카페로 해석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과 맥주를 팔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급 시설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팔각정의 풍경에 대해서 온갖 미사여구로 서술하고 있음을 볼 때 연못을 낀 이 정적인 공간은, 젊은 학생층 뿐 아니라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청장년층에게도 인기 있는 정취있는 중심공간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2) 공간 2: 북문 앞 서편 구석의 정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石塔의 옆홀 지나 공원의 북문 앞 서편 구석의 잡초 밭에 서있는 쓸쓸하고 퍽퍽한 정자를 엿보았다. 여기는 한 구석이고 쓸쓸하고 거즈름 까닭인지 낮이면 이 근처 勞働 役夫들이 모여 안저서 각처의 버리터 이악이와 경협담 बात하는 곳으로 어느 틈엔지 저절로 된 곳이라. 이날도 보니까 여기는 또 다른 세상으로 勞働者 어대 직공 고학생 10餘人이 모여 안저서 이악이판을 차리고 어떤 양복한, 그 중엔 조출한 40세 쯤 된 남자가 連해 자조 입을 놀리면서 米國으로 별이갓던 이악이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謹聽하고 있다. ...(중략)... 팔각정, 양식집, 족오만 공원의 속에서도 이 정자에는 투철히 다른 세상을 열고 있다.

기자가 두 번째로 묘사하고 있는 공간은 북문 서편의 정자가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의 특징은 시내의 노동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주로 각처에서 모여든 일용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미국으로 일하러 간 사람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는 장면에서, 당시에 일반 서민계층에도 이미 해외이민이나,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자는 이 공간을 설명하면서, 다소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쓸쓸히', '킴킴한', '거친' 등의 표현은 이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연상케 한다. 아무래도 당시의 노동자들이 점유하는 공간은, 바로 이웃한 팔각정이나 연못가 양식집과는 전혀 다른 음지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3) 공간 3: 공원 동편의 음악당 근처와 담장 아래 이 공원의 동편 담 밋은 어두 퍽퍽하고 움퍽한 곳이

라 때때로 이악이거리가 이곳에서 생긴다. 공원의 동문 부근으로부터 龜碑가 서는 곳까지의 퍽킴한 곳에는 전광이 간신히 새여 들어올 뿐이어서 涼影이 滿地하야 참으로 그들의 천지라. 가지마다 周衣가 걸렸고 그늘마다 사람이 열리어 있는 중에, 서늘하게 분장한 젊은 여인이 三三五五 떼를 지어 그늘 속에 자리를 잡고 모르는 남자에게 담배불을 청하야 수작을 거는 것도 이곳이라. 그래서 남자가 꼬이는지 남자가 꼬이니까 그것이 모여드는지 하여튼, 여드름 흐르는 양복장이나 분 바른 賣淫女는 들어만 서면 이편으로 쏠린다 한다.

공원 동편의 공간은 대체로 어두운 분위기로 묘사되고 있다. 석탑의 동편에 음악당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 음악당이 1902년에 조성된 근악대 건물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음악당 근처에 승리옥이라는 음식점이 있고 그 앞의 널조각 걸상에서 한 쌍의 남녀가 나누는 대화를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으나, 기자는 대화를 나누는 여자를 매음녀로 단정한다. 그리고 동편 담장 아래는 어둡고 움퍽 파여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는 장소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곳은 아마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틈타 애정행각을 벌이거나, 담 너머 사창가의 여자들이 손님을 끌기 위한 장소로 여겨진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조성된 이곳의 사창가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 있다.

4) 공간 4: 화초온실 주변의 녹지

바로 거기서 정문으로 나올 것이나, 아즉도 이 공원 안의 정취있는 곳이 두 곳이나 남았다.

정문과 팔각정 사이에 서편으로 뚫린 길이 둘이 있는 중에 첫째 길은 花草溫室 압홀 지나 변소로 연못으로 가는 길이니 정문으로 들어오다 가나 나아가다 가나 이 길로 꺾기어 들어서면 이 공원에서 제일 밝고 제일 고요하고 안락한 따로운 세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정자도 아니고 그늘도 아니지마는 그 길을 꺾겨 들어서면 바로 거기 바른손쪽(右便)으로 칠패 안에, 전등 불빛이 몹시 찬란하게 탐탁하게 비추는 풀밭이 있스니 거기는 키 큰 잡목에 에워 싸인 두 間쯤 되는 곳에 丹楓 나무가 한 株 소나무 두어 株가 서있고, 그 밋에는 數尺이나 자라서 나팔 주둥이처럼 보기조케 느진 난초가 여러 폭이 안락하게 조용히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서 있는 전등 불빛이 ...(후략)

기자는 이 공간에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 글에서 묘사된 다른 장소와는 달리 성격이 분명한 공간이 아니다. 다만 글이 설명한다면 화초온실과 관련된 정원적 풍경을 가진 녹지로 보인다. 우선 팔각정 서남측에 위치한 이 공간은 현재도 일조 조건이 가장 뛰어나서 낮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밤 풍경을 기록한 기자의 묘사에서, 가장 밝은 곳이라는 것은 아마도 조명등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팔각정을 거치지 않고 공원의 중심공간인 연못으로 연결되는 동선 상에 위치한 이곳은, 비교적 공원 입구 쪽에 있어서 공원 전체를 둘러보지 않아도 쉽게 공원의 흥취를 느끼는 장소로 조성되었을 것이다. 또한 공간적 구조가 사분원의 서구적 공원형식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 곳은 연못이나 화단 등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일본풍의 형식이 엮여 보이는 공간으로 보여진다.

5) 공간 5: 화초온실 우편의 정자

花草溫室을 지나 그 길 우편에 있는 정자에 이르렀다. 이 정자는 年前에 어느 말 잘하는 친구가 每日每夜 이곳에 와서 古談을 하여서 그 古談에 맛을 부틴 사람들이 每夜 무슨 사무시간 보듯이 모여들던 곳이라. ... (중략)... 그러면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謹聽하는 태도로 명심해 듯고 있다. 이리다가 열두시쯤 되면 퇴사 시간이나 된 것가티 옷을 다시 입고 헤어질 진다. 이러케해야 꼭 헤어져 가는 사람의 입으로 풍설이나 소문이 시중에 꼭 퍼진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밤이면 하나씩 들식 모여 들면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제 오십시요? 하고 언제 친했든 듯이 인사를 바꾸고 또 이악이를 시작한다.

이 공간은 본 논고의 주제인 문화적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다. 한 마디로 이야기판 즉, 시사평론의 장소인 것이다. 정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판이 벌어진다는 점에서는 북문 앞의 정자 공간과 비슷하지만, 그 곳이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교환의 장소라고 한다면, 이곳은 비교적 다양한 계층이 중심이 된 시사평론의 장소인 셈이다. 기자가 북문 앞 정자를 쓸쓸하고 컴컴한 장소라고 묘사한 것에 반해, 이 곳 화초온실 주변은 밝고 긍정적인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주제⁶⁾는 당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금주법에 대한 찬반 논쟁부

터, 단성사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진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모인 이들의 입을 통해 소문으로 번져간다. 결국 이 장소는 다양한 대중매체가 발전하지 못한 시기에 현재의 매체를 대신했던 이야기판, 즉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소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이야기판의 형태는 최근까지도 여러 이야기꾼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3. 일상의 관찰을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단서들

지금까지의 서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3년에 일반에게 개방된 탑골공원은, 1920년대 초에 이르러 그 이용의 측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 작은 공간이지만 적지 않은 활동이 유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이 공원을 중심으로 펼쳐졌음을 의미한다. 이용자들의 연령층은 매우 다양하며, 사회적 신분 또한 다양하다⁷⁾. 장소의 영역 또한 한가로운 연못가의 휴식공간에서부터, 매춘을 위한 장소까지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이러한 장소의 구분은 지극히 작은 공간에서 각각의 개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은 공원 자체가 자기 완결적으로 이용되었다기 보다는 주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탑골공원이 활기에 넘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치가 가지는 뛰어난 접근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1899년에 대중교통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해 5월 서대문에서 종로를 거쳐 청량리에 이르는 구간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차 영업이 시작되었다(이은숙, 1994). 전차의 등장은 도시구조가 대중교통 수단에 의해 개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1934년 당시 탑골공원 주변을 지나는 전차노선은 무려 3개 노선에 이르렀다. 이는 시민들의 활동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에 전차가 등장한 1899년은 바로 탑골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고 그 첫 번째 노선이 탑골공원을 지나는 종로에 부설되었다는 것에서, 전차의 등장이 공원을 활성화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공원의 봄 풍경을 기록한 1923년의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개벽, 1923) 1919년 삼일운동의 감동적인 기억을 장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즈음 탑골공원은

한국인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공간으로 상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20년 서울의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72.7%, 일본인이 26.2%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대부분은 탐골공원에서 가까운 도시 북부 도성 내와 정계천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다(이혜은, 1994). 당시 이 공원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공간의 상징성과 함께 거주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의 거리에 있었다는 실리적 가치가 상호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즈음 공원 주변의 특이한 변화 중 하나로 사창가의 등장울 들 수 있다. 기자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밤늦은 시간이면 공원 동쪽에 값싼 기생이나 매음녀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공원 담장 바깥으로 사창가가 조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 일대에 사창가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구한말 관기제도의 폐지와 함께 우리의 기생문화가 일본의 공창제와 교묘히 결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조선조 연산군 10년(1504)에 원각사의 승려들을 쫓아내고, 기녀들을 끌어들이어 잔치판을 벌이기 위한 연방원을 차렸다는 기록에서도(주간한국, 2002. 8. 4)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이곳에서 시작된 기생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IV. 1920년대 이후의 변화 양상

공원에 대한 1920년대의 기록은, 당시의 사회 여건상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한 문예잡지의 상세한 기사를 단서로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특히 해방 이후의 기록은 여러 신문 매체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사들을 검색할 수 있었다. 다만, 신문보도의 특징상 단순한 사실보도와 관련된 것들은 공통된 보도 자료를 통해 중복적으로 다루어지므로, 이 경우 조선일보 하나의 매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기자의 현장 스케치와 같은 주관적 기사는 관련된 타 매체도 포함시켰다.

이렇게 수집한 기사는 총 342건이었으며, 이를 기사의 형태 및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기별 구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거꾸로 의미 있는 시기를 구별해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표 1 참조)

표 1. 형태별, 시기별 기사분석 결과

구분	세부 내용	1930~ 1945	1945~ 1989	1990~ 1995	1996~ 현재
1. 집회 및 시위	애국, 항일, 반공 등	2	3	11	20
	반정부, 인권, 노동, 시민운동	-	4	38	38
	정치집회	-	5	2	-
2. 행사개최	민간부문 주도 행사	2	3	7	23
	기념행사: 31절, 광복절 등	1	2	8	23
3. 시설관련	노후시설 지적	3	5	6	5
	시설정비 홍보	5	11	-	14
4. 사건·사고	인명사고 등	5	3	-	-
5.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	-	-	5	26
6. 노인 관련	공원 이용 행태 등	-	2	9	20
7. 서민 관련	공원 이용 행태 등	-	12	2	13
8. 기타		-	1	3	-
계	총 342건	18	51	91	182

1. 1930년 ~ 1945년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장 초기의 탐골공원은 다분화된 공원문화와 다양한 개성적 장소가 존재하는 도시공원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 왔지만, 2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점점 침체기로 접어든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최초 조성 후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원 관리청인 총독부의 공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는 탐골공원이 가지는 정체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흥복사와 원각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소적 역사성과, 한국정부에 의해 조성된 공원이란 점, 그리고 일본인 거주지역에 조성된 다른 공원과 다른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교통 요지에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1919년 만세운동의 중심적 장소로 한국인들에게 상징적 장소로 여겨졌다는 부담감이 서로 상승 작용하여 당시 공원관리를 담당했던 총독부의 입장에서 결코 꺼려진 장소로 여겨진 것이다. 결국 총독부는 공원의 폐쇄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시설 투자는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매일신보와 조선중앙일보의 탐골공원 관련 기사 18건 중 8건이 노후한 시설을 다룬 기사들이다. 그 주요 내용은 노후한 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원관리를 맡은 총독부의 무관심을 비난하고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공원은 새로운 변신의 기회를 맞게 된다. 다른 공원들과는 달리 개방 초기부터 줄곧 총독부에서 맡아온 공원 관리권이 1933년에 경성부로 이관 되게 되었다. 이 무렵 경성부에서는 공원 정비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공원에 라디오를 설치하기도 하며, 아동유원지를 만드는 등 공원을 바라보는 정책적 변화가 엿보인다. 공원 조성 초기부터 있어 온 여름철 야외 음악회도 다시 활기를 띤다.(표 2 참조) 1933년 이후의 이러한 변화는 공원 관리청이 경성부로 이관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936년 이후에는 공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공원관리청 이관 직후에 나타난 이러한 의욕적 변화가 그 후까지 지속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성부 역시 총독부 산하에 있었으며,

표 2. 1930년대의 기사 내용

발행일	신문명	기사내용
1929. 4. 11	매 일 신 보	건물이 쓰러져가고 연못의 물은 말랐으며, 수목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원이 마치 폐허와 같다
1929. 8. 20	매 일 신 보	“폐허화한 탐골공원”이라는 제하로 당시 경성부가 공원의 수리 신청안을 총독부에 올렸으나 총독부에서 이를 거절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공원은 노동자들의 숙박소가 되었고, 연못의 수질도 악화되어 악취가 풍긴다
1933. 5. 20	조 선 중 앙 일 보	공원 안에 아동유원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 형태는 창경원의 아동유원지와 비슷한 종류가 될 것
1933. 6. 28	매 일 신 보	공원을 방문한 조선청년 한 사람이, 공원 시설이 노후한 것에 크게 실망하여 현금 1천원을 경성부에 기부하였다. 이에 경성부에서는 그 기부금을 공원 보수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1933. 9. 13	매 일 신 보	조선청년이 기부한 돈으로 공원에 라디오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1936. 7. 3	조선중앙일보	공원 안에서 여름 야외 음악회가 열린다

당시 일본의 사회적 상황이 2차 대전 후반기에 모든 총력을 태평양전쟁에 몰입시키는 전이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원정책을 펼쳐나갈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1945년 ~ 1989년

이 시기의 사회적 상황은 무척 복잡하게 전개된다. 일제강점기 후반기부터 방치된 공원은, 50년대 말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또다시 쇠락의 길을 걷는다. 해방이후 혼란한 사회 분위기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또 전후 복구과정 속에서 공원문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전쟁 직후인 1953년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원 북쪽의 공지에 판자촌이 들어서기도 한다.(그림 3 참조)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듯 어느 매체에서도 1958년 이전의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시기는 시간적으로는 45년이라는 긴 세월이지만, 적어도 공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시기는 1960년 이후로 30년 정도에 그치고 만다.

이 기간동안 탐골공원을 다룬 기사는 총 51건이 나타난다. 그 중 집회와 시위관련 기사가 12건, 시설관련 기사가 16건, 서민들의 애환을 다룬 기사가 14건으로, 비교적 고른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공원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표 3 참조)

집회와 시위에 관련한 기사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당시의 혼란한 정치 상황이 위치한다. 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 이른바 군사정권은 시민들의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집회장소로 탐골공원이 자주 이용되



그림 3. 1953년의 탐골공원
자료 : 서울시정 개발연구원(2000)

표 3. 1945년~1989년의 기사 내용

발행일	신문명	기사내용
1958. 12. 5	동아일보	보안법 반대시위 장소인 탐골공원을 하루 동안 입시 폐쇄
1960. 10.23	조선일보	파고다공원이 마치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민의의 광장으로 이용
1961. 5. 18	동아일보	공원에서 공초를 주우며 살아가는 사람의 애환을 그린 동정 스케치
1961. 5. 20	동아일보	공원이 무주택자 서민들의 안식처로 이용되고 있다는 동정 스케치
1966. 8. 18	조선일보	내년에 파고다공원을 유료화하고, 상가아케이드를 건설한다는 기사
1968. 4. 6	조선일보	노인들의 공원 무료입장을 위해 서민들이 서명운동으로 진정
1983. 7. 30	조선일보	파고다아케이드를 철거하고 공원을 정비하는 계획안을 소개
1984. 8. 16	조선일보	13개대생 천 여명 시위, 8.15기념식 뒤 상대. 파고다공원에서
1986. 6. 29	조선일보	어제 파고다공원에서 실향민 쾨기대회를 열어
1987. 5. 24	조선일보	파고다공원 추모회 봉쇄. 경찰 시위대학생 등 1300명 연행

었다. 이곳이 항일 규탄대회를 포함한 저항운동의 메카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이 장소가 과거 3.1운동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공원은 중대한 물리적 변화를 겪게 된다. 1967년에 이 일대에 시행된 도시재개발 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으로 주변의 불량 주택들이 철거되고 인접한 사창가가 이전되는 등 주변 정비가 이루어지지만, 공원의 서측과 북측이 파고다아케이드에 둘러싸이게 됨으로써 공원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등 공원 자체의 질은 저하되게 되었다. 특히 이 정비사업으로 인해 공원 유료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공원의 기본적인 성격이 변질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곧 사회적 갈등으로 표면화되었고, 결국 상가 건설 15년만인 1983년에 파고다아케이드는 철거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상가를 철거하고 재정비한 탐골공원은, 민족기념공원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당시 공원 이용자의 40%가 노인들로 채워지는 등 공원정책이 사회적 변화의 관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해방이후 50년대 말까지 특별한 공원문화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곳은, 6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문화가 태동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계층이 찾아오는 도시의 쉼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1961년 5월5일부터 5월20일까지 11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된 「탐골공원 24시」는 당시 탐골공원이 서민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짐작케 한다. 이 기사를 통해 탐골공원을 무대로 삼아 살아가는 노숙자, 실업자, 악극단, 이야기꾼 등 다양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공원 변화 양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분화된 공원 문화가 새롭게 형성된 시기라 볼 수 있으며, 그 시작은 1960년대 초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원 시설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의 장소가 집회와 시위 문화의 메카로 등장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비롯한 서민 문화가 공원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상호 작용한다.

3. 1990년 ~ 1995년

이 시기는 비록 5년여에 걸친 짧은 기간이지만, 탐골공원이 주변의 사회적 상황과 소통하면서 그 성격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로 해석된다. 이 기간 중 탐골공원을 다룬 기사는 모두 91건으로, 과거 30년간의 기록보다 수적으로 무려 두 배에 달한다. 기사 형태의 구성도 이채롭다.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49건이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기사로 이루어지며 노인문제가 표면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표 1. 4 참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기사 중에서도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들이 38건이나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1989년까지의 기사에서는 보수적 성향의 집회와 진보적 성향의 집회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는 1990년대에 들면서 정치적 상황이 변하고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크게 고양된 사회변화 양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집회의 주제 역시, 항일이나 반정부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인권문제나, 자발적인 시민운동, 노동운동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이 장소가 조선시대부터 민의를 수렴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한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노인들의 이용행태가 표면화됨과 동시에 서민들이나 불우노인들을 위한 봉

표 4. 1990년~1995년의 기사 내용

발행일	신문명	기사내용
1990. 4. 8	조선일보	결식노인들에 무료 점심을 제공한 할머니 봉사단의 안타까움 소개
1991. 7. 8	조선일보	각계 원로 32인이 파고다공원에서 남북원로 회담 제의를 위한 선언
1991. 11. 7	조선일보	경실련 등 20개 단체가 참여한 경제개혁 촉구대회 개최
1992. 5. 24	조선일보	탑골공원에서 매일 오후2시 색소폰 공연을 3년째 하고 있는 노신사
1993. 2. 19	조선일보	노인봉사대 발족
1993. 4. 16	조선일보	해고 노동자 원상 복직을 위한 대책위 촉구대회
1993. 7. 26	조선일보	탑골공원 바로 뒤 쓰레기 적환장의 문제점을 지적
1993. 12.14	조선일보	쌀개방에 반대하여 농어민 후계자들이 자격을 반납하고 집회-시위
1995. 5. 9	조선일보	탑골공원에서 2천명이 참가한 무의탁노인 효도잔치 개최
1995. 6. 24	조선일보	탑골공원에 모인 노인들이 지방선거 후보지지 문제로 말싸움

사활동에 대한 기사가 새롭게 등장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서로 상응하는 관계를 가지는데, 1960년대에도 서민들의 애환을 다룬 기사가 많이 있었지만, 봉사활동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기는 당시보다 경제적 여건이 월등히 좋아졌고 그 결과가 공원의 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나타난 장소적 특징 즉,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불우이웃을 돕는 자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 땅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땅에 최초의 역사를 기록한 흥복사는 세종 4년에 빈민구제사업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세조가 흥복사를 원각사로 중건할 때까지 이 곳은 백성들을 위한 공관(共館)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탑골공원 앞 철물고 일대는 정조(正祖)대에 여가의 행렬이 멈춰 쉬면서 평민들로부터 수많은 상언을 접수하던 곳 중의 하나였으며 이런 민의 수렴 장소라는 이유로 구한말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공원의 적지로 선택되었다(이소영, 2000). 이러한 사실은 이 곳이 공원으로 조성된 이유가 우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1919년 만세운동이 이 곳에서 발화된 것과도 깊은 연

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1991년에 이루어진 시설 개보수는 화장실 확장, 휴식시설의 정비에 한정되면서 오히려 노인 이용자들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하철 노선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1, 3, 5호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고,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정책이 시행되면서 1990년대 들어 탑골공원은 서서히 '노인공원'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런데 노인들이 공원으로 모이게 되는 원인에는 몇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내재하고 있다.

우선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비해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집에 머물러야 하는 노인들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는 그 비례만큼 노인인구의 증가도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노인들을 공원으로 불러모으게 된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노인들이 공원으로 모여들면서 이 곳은 다시 활력을 찾게 된다.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저렴한 식당⁸⁾들이 생겨나고, 불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이 이어졌다. 주변 거리에는 노인들 취향에 맞는 물품들을 취급하는 노점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노인들이 탑골공원을 찾게 만드는 요인으로 다시 작용하게 된다.

4. 1996년 ~ 2000년 성역화 사업 이전

1990년대 들어 형성되기 시작한 시민문화와 노인문화는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볼 때 누적된 경제위기가 IMF라는 극한적 상황을 맞으면서 과거 5년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전체 기사 182건 중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것들은 약 32%로 과거 5년보다 줄어들지만 노인들과 서민들의 이용행태 및 이와 관련한 봉사활동의 행태는 거의 두 배 가량 급증한다.(표 1, 5 참조) 공원의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특정 집단의 집중적 이용은, 노인문화의 정착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공원 관리청으로 하

여금 공원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한다.

이 시기의 탐골공원은 하루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거의 3000여명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 IMF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실직자들이 가세하게 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한 매춘, 노숙자들로 인한 공원 분위기 훼손, 위생상의 문제 등 부정적 영향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절정을 이룬 탐골공원의 노인이용 행태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모여 소일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나름대로 화려한 노인문화로 성장한다. 즉 기술적 매스미디어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이 그들만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의 주인인 노인들은 만담, 강의, 고사성어, 붓글씨 등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들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등장인물만 바뀌었을 뿐, 탐골공원의 생동감, 가치는 1920년대 공원개방 초기와 다를 바 없다(<http://my.netian.com/~ahabitus/>).

그리고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대인 문화의 중심점에 탐골공원의 이야기관이 위치한다. 1920년대 '개벽'에서 묘사한 이야기꾼들의 시사평론의 장이, 공원 역사 일 백년이 지나가는 오늘까지도 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관을 주도하는 것은 이곳의 유명한 이야기꾼들이다. 이 이야기관에서 구연되는 이야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고담이나 재담, 경험담, 시국담에 이르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화된다. 전통적 이야기관의 축소라고 할 만한 이야기 구성이다. 단 이야기꾼에 따라서 선호하는 이야기 종류와 종목에 차이가 있다.⁹⁾

탐골공원에는 곳곳에서 이야기관이 벌어진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한담을 하는 것과는 다른 활기찬 이야기관이다. 한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면 적게는 대여섯 명에서 많게는 백 여 명에 이르는 청중이 모여서 하나의 흥성한 '판'을 이룬다. 그리고는 한바탕 이야기 마당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야기관은 공원의 여기저기서 벌어지지만,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 정해진 곳이 한 군데 있다. 휴지통을 가운데 두고 등나무 밑에 여러

개의 벤치가 모여 있는, 공원 안에서도 목이 좋은 장소다. 전통적인 옛날이야기는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다 (<http://konkuk.ac.kr/~shindh/tale/tap00.htm>).

구비문학을 연구한 위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문화를 좇아 탐골공원을 외면하는 사이에, 노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문화를 이곳에서 지켜오고 있다.¹⁰⁾ 이야기꾼들의 계보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계보의 저 끝에는, 탐골공원 초기에 활약한 선배 세대가 있었을 것이니, 하나의 장소가 가지는 관성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마도 이러한 전통적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세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표 5. 1996년~2000년의 기사 내용

발행일	신문명	기사내용
1996. 6. 20	조선일보	북한동포돕기 쌀모으기 YMCA 회원 결의대회
1996. 9. 29	조선일보	녹색연합에서 탐골공원 가로수 탁기 행사를 개최
1997. 2. 27	조선일보	미용사 12명이 매주 목요일마다 탐골공원에서 무료 자원봉사
1997. 4. 2	조선일보	탐골공원에서 할아버지-할머니 패션쇼 '우리도 일류 멋쟁이라우'
1998. 4. 5	조선일보	탐골공원에서 딸 백일잔치 : 실직자-노인들 장사진
1998. 5. 5	조선일보	직장 잃고 쉼 곳 없는 이들 어디로 가나 : 탐골공원 유료화 논란
1999. 12. 20	조선일보	IMF 2년 : 실직 자녀들 가출, 의보조차 끊긴 채 노인 22만 굶주려
2000. 5. 11	조선일보	탐골공원에서 연주한 송파구 실버악단 '칠순청춘'
2000. 7. 17	조선일보	노인들 복지관에서 급식 제공, 유료화 계획은 철회
2000. 11. 28	조선일보	탐골공원 성역화 계획 발표

V. 현재의 탐골공원

1. 탐골공원 성역화 사업

구한말 조성된 탐골공원은 20세기 한 세기동안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관성을 타고 최근까지 변모해 왔으나, 2000년 즉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2000년 서울시에서는 탑골공원 성역화 계획¹¹⁾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이 땅이 가져온 도시공원으로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3.1정신을 기리는 기념적 장소로 재정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공원 관리청에 의한 크고 작은 정책적 결정¹²⁾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러한 결정은 공원의 근본적 기능과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 취해진 성역화 결정은 장소를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한 획기적인 결정이었다. 이 배경에는 노인들이라는 특정 계층의 집중적 이용에 따른 부정적 여론¹³⁾과 2002년 월드컵경기 시 탑골공원을 찾게 될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계를 진행하고 문화재 시굴조사¹⁴⁾를 벌이는 과정에서 성역화 사업은 불교계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휩싸이게 된다.

불교계의 시각은, 탑골공원이 3.1운동의 성지이기 이전에 고려, 조선조를 거치면서 원각사가 자리 잡았던 터이므로, 원각사지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굴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발굴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디지털정보, 2001. 5. 30). 서울시와 불교계의 이러한 견해차이는 탑골공원이라는 장소를 해석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불교계는 흥복사와 원각사로 이어지는 사찰의 역사를 들어 이 땅에 대한 지속적인 연고를 주장하는 한편, 공원 관리청인 서울시에서는 3.1운동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성역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계과정을 통해 노출된 이러한 시각차이는, 탑골공원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한 33인 민족대표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각 종교계에서는 3.1정신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다. 천도교에서는 손병희 선생 동상을, 불교계에서는 만해운동당대선사비를 각각 설치하였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 해석되면서 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탑골공원의 재정비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¹⁵⁾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일련의 문제들은, 하나

의 장소가 얼마나 많은 사연 혹은 사건과 연루되어 있으며, 그 영향력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면서, 공원관리청인 서울시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성역화 사업을 포기하게 만든다. 결국 2001년 7월 서울시에서는 성역화 작업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을 이유로, 공원 유훈화를 포함한 성역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에 이른다.

2.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

2000년부터 추진되어 온 재정비 사업은 '성역화'라는 전체를 생략한 채, 2002년 3월 1일 재개장하게 된다. 이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부분은, 그동안 이곳을 찾아오던 노인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공원의 이용 시간을 한 시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공원관리지침¹⁶⁾과 노인복지센터¹⁷⁾의 개원으로 요약된다. 특히 파고다, 벤치 등 공원 휴식시설의 철거는, 이 장소가 이제는 공원이 아니라 사실상 성역화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역화 이전 공원 전체가 노인들의 활동 무대로 이용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는 입구부와 화장실 근처, 새로 조성된 휴식공간에 한하여 소규모 그룹만이 소극적인 공원 이용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4,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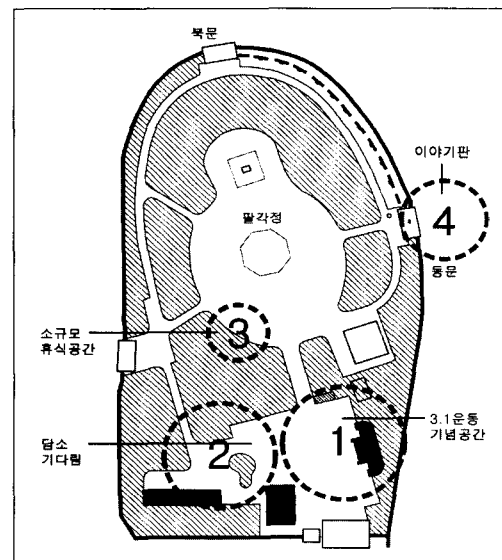


그림 4. 현재의 탑골공원 장소 형성



그림 5. 계획안의 공간구조

이렇게 변화된 탑골공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현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다. 우선 긍정적 견해로는, 노인들을 시설이 우수한 노인복지센터로 유도하면서, 보다 개선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들 틈에 끼어 공원의 슬럼화를 재촉했던 이른바 노숙자들을 공원에서 사라지게 했다는 공원 관리적 차원에서의 평가다. 이에 반해 탑골공원이라는 장소성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자발적 대인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짐으로써, 사회와의 소통을 끊은 채 박제된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들린다. 하루에 3000여명 넘게 이 공원을 이용하던 노인들은 이제 대부분 노인복지센터로 혹은 인근의 종묘공원으로 옮겨갔다.(그림 6, 7 참조)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소의 관성이 작용하는 듯, 공원의 북측과 동측 담장 너머로 장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노인들이 찾아들고 있으며(그림 8 참조), 이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인근 사찰의 무료 급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비된 공원에는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광경을 간간히 목격할 수 있다. 분명 새로운 변화가 태동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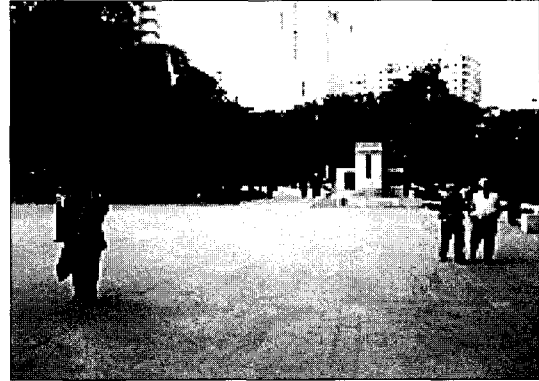


그림 6. 성역화 이후



그림 7. 종묘공원으로 옮겨간 노인들



그림 8. 탑골공원 주변에 남은 노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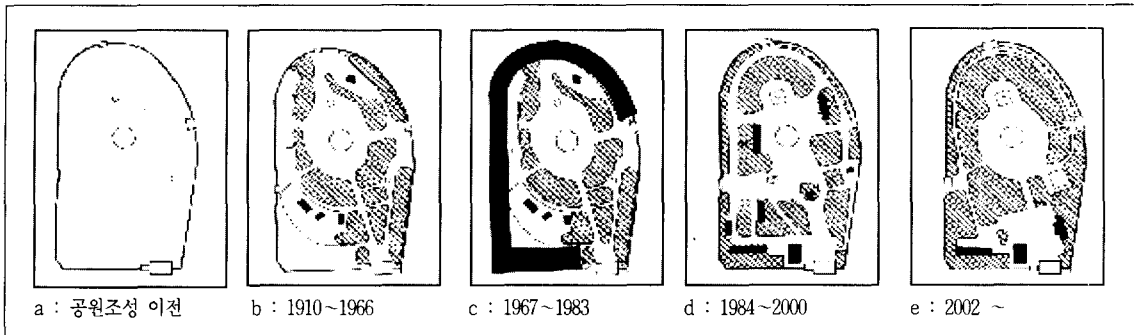


그림 9. 탑골공원의 물리적 공간구조 변화

표 6. 탑골공원의 물리적 공간구조와 장소 형성의 변화

물리적 변화		연대	장소성 변화	
1910 이전	팔각정, 원각사탑, 원각사비 이외 공원시설 미조성		황실부속 음악연주소 주말에 한하여 일반인에 공개	1913 이전
1910	총독부에 의해 원로, 화단, 연못, 정자 등 본격적인 조경시설들이 조성되는 시기. 특히 공원 인접부에 요리집들이 들어섬	1910	다분화된 공원문화 활성화	1913
		1920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 충실 3·1운동으로 민족성지로 부각	
		1930	도시공원의 기능 약화/상실 전쟁과 전후 복구의 격변기속에	1930
1933	공원관리가 경성부로 이관되면서 노후해진 공원시설을 보수, 이동 유원지 설치되는 등 부분적인 공간구조가 변화하는 시기	1940	공원문화 담보	1945
		1950		
		1960	새로운 공원 문화의 태동 집회와 시위	1961
1967	공원 복서축이 파고다아케이드로 둘러싸이게 되면서 공원 면적이 줄어들고 공원이 유료화	1970	기념행사 서민들의 안식처 노인층의 이용증가	
		1980		
1983	파고다아케이드 철거(기념공원)			
1991	화장실, 벤치 등 휴게시설 대규모 증설, 조경공사 실시	1990	시민운동의 메카 노인들의 공원문화 성숙	1980
		2000		
2002 이후	성역화사업으로 휴게시설 축소, 식재 강화		기념공간(성역화)으로 변모 도시공원 기능 대폭 축소	2002 이후

V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탑골공원의 변화 양상은, 크게 물리적 공간구조의 변화와 장소 형성과 관련된 공원의 정체성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그림 9, 표 6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상응하는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적어도 탑골공원이라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물리적 공간변화가 공원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한정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것은 탑골공원의 장소적 특성이 설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물리적 형태보다는 당대의 사회적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10년에 본격적인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이후 최근의 성역화사업 직전까지 약 90년 동안, 물리적 공간구조의 변화는 1967년과 1984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였지만 동 기간에 공원의 장소적 특성은 무려 다섯 차례나 변화해 온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특히 60년대 초반 서민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원 문화가 싹트게 된 원인이 시설 정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과, 파고다아케이드를 철거하면서 민족기념공원을 표방한 1984년의 재조성 사업이 갑작스런 노인 이용층의 증가로 기념공원으로의 장소적 변화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탑골공원의 물리적 구성과 정체성과의 관계는, 개방 초기에 나타난 전통적인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사라지고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1920년대의 특징을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다분화된 장소형성이라고 본다면, 오랜 침체기를 거쳐 새로운 활력을 찾기 시작한 1960년대의 경우 그 표면적 행태는 과거와 유사할지 모르나 실상은 공원의 전통적 기능이 약화되었고, 마치 특정한 목적을 가진 도시광장처럼 한정된 계층이 만들어내는 특정한 행태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2000년 성역화 사업 이전까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이 변화 양상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탑골공원이 다른 공원들과는 달리 도시 활동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이곳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공원문화를 생산해 낸 장소였다는 점이다. 그리

고 그 중심에 이야기관으로 대표되는 대인문화가 위치한다. 이 같은 공원문화의 생산은, 공원 관리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상황과 스스로 긴밀히 소통하고 결합하면서 창출해 낸 결과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탑골공원에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는 이 땅에 잠재되어있는 힘이 어느 순간 당대의 사회적 상황과 결합되면서 그 관성을 작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빈민구제 활동과 민의수렴의 관성이 오늘날 이웃돕기 행사와 시민운동으로 이어져 왔으며, 3.1운동의 관성 역시 진보적 저항운동이라는 형태로 이어져 왔다. 또한 1920년대 정치풍자를 즐기던 만담꾼들은, 최근까지도 탑골공원의 스타임을 자처하는 이야기꾼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어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시는, 장소라는 생물학적 지체들로 이루어진 유기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들 혹은 그것들의 관계를 조율하고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 있어서 공원처럼, 어떤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들을 도시라는 거대한 유기체와 관계 맺게 하는 일이다. 이 때 우리의 눈은 항상 대상지 주변에 열려있어야 하며, 귀는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어야 한다. 장소는 자기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진화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탑골공원이라는 장소에 대해 그 변이 과정을 문화적 측면에서 해석해 봄으로써, 장소 형성과 관련된 공원설계의 과제를 되짚어 본 의의를 가진다. 이제 탑골공원은 기념공원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있다. 이 땅이 가진 수 백 년의 역사가, 그 장소적 관성이, 앞으로 펼쳐질 사회적 흐름과 어떻게 소통하고 호흡해 나갈지 지켜보고 또 관여하는 일이 우리 앞에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주 1. 효창원 한양공원, 장충단공원 등을 일컫는다.

주 2. 1920년 4월28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까지 경성시민들의 저녁 놀이터로 해마다 지대한 흥취와 편의를 주던 탑골공원은 지난 십일부터 밤 열두시까지 문을 열었다더라”고 기사화 하고 있다.

주 3. 1920년에서 1949년 사이에 철도교를 배경으로 발행된 월간종합지, 일제에 대한 항쟁을 그 기본노선으로 삼았고, 그러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회개조와 민족문화창달을 표방하였다.

주 4.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전략) 그러면 『자아 들어오시오-』 하고 綠陰의 집 塔洞公園의 동근 전등은 반짝 켜진다. 좁고 복잡하고 먼지만흔 焔焔한 속에서 삼는 듯한 더위에 썬로이 지내면서도 갖가지 땀들일 곳조차 가지지 못한 京城시민에게 참말로 이 塔洞公園은 좁으나마 얼마나 귀엽고 서늘한 重寶로운 마당이라.”
- 주 5. 최찬식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장면은 당시의 신소설 중에서 가장 널리 애독된 작품의 하나로서, 1918년 3월에는 신극단 취성좌의 첫 공연작품으로 단성사에서 상연되기도 하였다.
- 주 6.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今時에 米國선 금주를 하는데 그 가부를 論難하고 佛蘭西에는 과부가 만흔데 인물은 어대가 낫고 하야 話頭가 서양으로 가는가 하면 今時에 또 團成社 사진은 어머코 明治町의 曲馬團은 어머코... 하야 話頭가 귀국을 하는 등 근심업는 無名客들의 허튼 이익이는 방향도 업시 이리저리 뛰여 다닌다.”
- 주 7.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젊은 중학생, 전문학생, 신사, 갓쓴이, 양복장이, 가지가지 옷사람이 단장도 끌고 부채도 들고 橫笛도 들고 누구를 찾는 것처럼, 천천히 빙빙 돌고들 잇었다.”
- 주 8. 공원의 복복과 동측 가로변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저렴한 점포와 식당들이 생겨났다. 보통 한 끼 식사가 2000원 미만으로,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이 이 공원을 찾게 되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오기노치히로, 1999).
- 주 9. 조일운씨의 장기(長技)는 박문수 암행담이었고, 봉원호씨는 길고 구수하게 이리지는 고담을 잘 구연하였다. 현재 활동중인 이야기꾼인 김한유씨는 경험과 허풍을 절묘하게 섞은 재담으로 판을 휘어잡고 있으며, 노재의씨는 구성진 고담들과 근간의 실화들을 망라하는 많은 이야기 종목을 자랑한다. 구연성씨는 시국 연설을 주 종목으로 하며, 신지우씨는 고담과 시국담 외에 자신이 만들었다는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신동훈, 1999).
- 주 10. 노재의씨 경우 그가 탑골공원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29세였던 1950년대부터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듣기만 하였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동안 이야기를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판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구상모, 1999).
- 주 11. 서울시의 탑골공원 성역화를 위한 재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의 과업내용서에는 과업의 목적을 다음과 명시하고 있다. “탑골공원은 독립운동의 성역으로서 위상을 바로 세우고, 역사적 상징성과 관련된 시설을 보강·정비함으로써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반적인 휴게공간이 아니라 3.1운동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 주 12. 1913년 평일에도 일반인에게 공원을 개방한 조치를 비롯하여, 1967년의 공원 유료화, 1984년의 파고다아케이드 철거 및 공원 무료화, 1991년의 사적지 지정 등을 의미한다.
- 주 13. 노인들의 이용자체가 부정적 여론을 이끌었다기 보다는 IMF 이후 늘어난 노숙자들의 문제, 그리고 노인들을 상대로 한 매춘, 음주 가부행위 등이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비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 주 14. 원각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는 서울시 역사박물관 주도로 2001년 3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61일간 실시하였다.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2002)
- 주 15. 공원 정문 정면에 위치하고 있던 순병희 선생 동상이 팔각정의 시각축선 상에 놓여 있어, 이를 정문 서편으로 옮기고자 했던 설계안은, 천도교 측의 반대에 의해 현 위치에서 약간의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주 16. 현재 탑골공원에서는 이용 시간을 한 시간으로 제한하고, 각종 집회 제한, 음식물 반입 금지, 신문지를 깔거나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원 관리를 광복회에 위탁함으로써 사실상 성역화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다.
- 주 17. 그동안 탑골공원에서 이루어졌던 무료 급식 등의 봉사활동이, 인근에 세워진 노인복지센터로 통합되었다. 현재 노인복지센터에는 하루 2500여명이 무료 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인용문헌

- 강신용(1995) 한국근대도시공원사. 서울: 조경.
- 이규목(2002) 한국의 도시경관. 서울: 열화당.
- 이은숙(1994) 서울의 경관변화.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이혜은(1994) 서울의 경관변화.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임승빈(1998) 조경이 만드는 도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서울 백년의 사진기록.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역사박물관(2002) 서울탑골공원 원각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 구상모(1999) 탑골공원 이야기꾼 노재의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기노치히로(1999) 탑골공원과 한국 할아버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2000) 탑골공원 노인 이용행태에 관한 해석.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개벽(1922) 공원정조, 하야의 각 공원. 통권 제26호 pp. 96-104.
- 개벽(1923) 봄을 맞는 탑동공원. 통권 제33호 pp. 76-79.
- 디지털법보, 2001. 5. 30 중단협. 「원각사지 전면 발굴하라.」
- 주간한국, 2002. 8. 4 「탑골공원 원각사지」
- 동아일보, 1958. 12. 5; 1961. 5. 18; 1961. 5. 20.
- 매일신보, 1924. 4. 11; 1929. 8. 20; 1933. 6. 28; 1933. 9. 13.
- 조선일보, 1960. 10. 23; 1966. 8. 18; 1968. 4. 6; 1983. 7. 30; 1984. 8. 16; 1986. 6. 29; 1987. 5. 24; 1990. 4. 8; 1991. 7. 8; 1991. 11. 7; 1992. 5. 24; 1993. 2. 19; 1993. 4. 16; 1993. 7. 26; 1993. 12. 14; 1995. 5. 9; 1995. 6. 24; 1996. 6. 20; 1996. 9. 29; 1997. 2. 27; 1997. 4. 2; 1998. 4. 5; 1998. 5. 5; 1999. 12. 20; 2000. 5. 11; 2000. 7. 17; 2000. 11. 28.
- 조선중앙일보, 1933. 5. 20; 1936. 7. 3.
- http://my.netian.com/~ahabitus/
- http://konkuk.ac.kr/~shindh/tale/tap00.htm

원 고 점 수 : 2002년 10월 27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2년 12월 18일

3인익명 심사필